

한라시론



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

##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의 의미

그렇다면 노인인구 20% 초고령 사회 진입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 초고령사회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연금고갈, 세대갈등 등의 부정적인 이슈들이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라는 말을 들으면 ‘큰일 났다’는 걱정과 함께 ‘부담’과 ‘위기’라는 이미지가 연상된다. 그러나 고령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는 다소 과장된 듯하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노인의 삶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우리 주변을 보면 70세, 80세를 넘어서도 사회 여려 분야에서 주역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건강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이라도 독립적, 자립적, 열정적으로 본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많다. 이처럼 활동성과 역량이 충분한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20퍼센트=위기’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노인인구 20%라는 기준은 노인 세대를 사회적 비용의 원인으로 바라보며 만들고, 고령화 논의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노인인구 20%를 먼저 넘은 일본, 북유럽 등의 국가들을 보면 고령사회가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그 사회의 준비 수준과 제도적 대응 역량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수경제, 실버관광, Age-Tech, 대학 연계 은퇴자공동체 (UBRC) 등 고령화가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창출하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고령사회

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노인인구 20%라는 수치는 여러 정책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의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 비중에 관심을 두기보다 앞으로 어떤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에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 20%는 위험선이 아닌, 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다.

제주가 이 신호를 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2025년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에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희망해 본다.

### 열린마당

#### 겨울철 도로,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김신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폭설과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제설이 이뤄진 도로라 하더라도 그늘진 구간과 다리 위 도로는 낮은 기온으로 쉽게 얼어붙는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지만 몇 가지 기본수칙만 지켜 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첫째, 감속운전은 겨울철의 최우선 원칙이다. 노면이 얼어 있거나 결빙이 의심될 경우 제동거리는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질 수 있다. 다리 위, 그늘진 도로, 새벽과

밤 시간대에는 결빙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 배터리는 낮은 온도에 민감해 겨울철 방전 사례가 잦다. 타이어 마모 또한 미끄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배터리 상태 확인, 부동액 점검, 와이파이 체크, 거울용 타이어 장착 등 기본적인 점검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보행자 보호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겨울철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더욱 증가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골목길, 주택가 등에서 속도를 낮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넷째,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불필요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한다면 체인 등 월동장비를 갖추고, 눈길 운전 요령을 숙지해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내년 체전 우려하는 내용 지속 보완”

도, 사후 활용 계획 등 언급

○…2026년 제주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최근 제주도의 회에서 도민 인지도, 시설 사후 활용, 스포츠관광 연계 부실 등을 지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문화·화합·경제·감동·미래 체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

제주도는 3일 “도내 경기장은장애인 편의 시설을 함께 확충해 향후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전시·전시회 등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이 자료에서 제주도는 “내년 대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관광·지역 상권·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도로 통제 늦어 운전자 곤욕

○…3일 제주 산지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16도로에도 많은 눈이 쌓였는데, 제주도의 도로 통제 안내문자가 늦어 운전자들이 곤욕.

이날 도는 오전 7시44분에 안전안내문자로 1100도로 소형 차량 통제, 이어 8시 55분에는 1100도로와 5·16도로 소형 통제를 알렸는데, 안내문자 이전부터 제주미방복지·성평안 구간 곳곳은 멈춰 선 차량들로 혼란.

한 도로 이용자는 “오전 8시 55분까지는 5·16도로 소형 통제 안내 문자가 없어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있었다”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도로를 막아 운전자들이 애를 먹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 사설

#### 초고령사회 진입한 제주, 선제적 대응해야

제주가 결국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서면 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 인구는 66만4922명으로 전월보다 354명 줄었다. 올해 들어 순 유출된 도민은 총 5446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달 19~34세 청년인구는 11만2584명으로 1년 전보다 3754명 줄었다. 이에 반해 고령층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만3087명으로 전체의 20.01%를 기록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 연령 또한 지난해 44.6세에서 올해 45.3세로 0.7세 상승해 제주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리자고 있다. 도시의 미래 구조와 인구 전략을 다시 짜는 대진 환이 요구된다.

#### 제주우주센터 준공,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제주지역에 우주산업 전초기지가 조성됐다. 그제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한화시스템 제주 우주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공사 1년 8개월 만에 위성을 연구·개발하고 제조하는 우주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연면적 1만여 평 규모로, 위성 조립·시험·보관 등 우주산업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한화 제주우주센터가 본격 가동할 경우 매달 4~8기의 소형 저궤도 위성을 생산할 수 있다. 단일 시설 기준으로 국내 최대 수준의 양산 능력이다. 아울러 한화 제주우주센터가 생산한 위성이 곧바로 인근 제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최적의 발사 각도와 안정된 낙하구역 확보가 제주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성 제조와 발사의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제주형 우주산업 공급망’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성발사까지 제주에서 이뤄지면 국내 유일의 독자적 우주 산업 생태계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선 우주센터 준공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내년부터 ‘위성정보 활용’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해 우주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 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접목해 구축한 최첨단 위성 연구·개발과 제조 시설인 만큼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 창출 역시 전망되고 있다.

좋은 때를 만나면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의미의 ‘득시무대(得時無怠)’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부고

홍을생 배우자 제주양공 의철(前 애월읍주민자치위원장, 향년 80세)께서 서기 2025년 12월 3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12월 5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5년 12월 6일(토요일)  
    낮 12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1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배우자 홍을생

아들 양정환(故) 며느리 강명진

딸 양소영 사위 강상권

혜영 김영수

※ 연락처: 홍을생 010-9192-3468  
양소영 010-3943-9987  
양혜영 010-2026-4850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인자(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종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4일

아들 김동원 며느리 이영미  
경원 김명희

딸 김경선 사위 하명수

### 매각공고

**매각물건 : 고철(철근 및 경량잡철)**  
**매각수량 : 약 25톤**(실수량정산)  
**물건적치장소 : 제주시 화북이동 772-5 일원**  
**물건반출시기 : 2025.12.22 ~ 반출 완료시**  
**매각방법 : 온라인접수(최고가선정), mail : sojuda77@gmail.com**  
**매각서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제출일 : 공고일 09시부터 ~ 2025. 12.08**  
**문의처 : 해동건설(주) 제주동부지구 조성현장 / 064-723-609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률**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 천호2길 13, 사동 107-1호(연동, 제일아파트)  
송달영수인 : 법무사 오승철  
2025년 12월 4일  
청구인(상속한정승인자) 박진용 박진우

###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 우리아

### 방수전문건설업 석주 개발

☎ 782-3644  
010-4690-3636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이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지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송소 가능 자료를 찾이드립니다.

◆ 제주누리 미동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哽,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신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 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